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느헤미야,

세션 5, 에스라 9-10장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가르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Dr. Tiberius Rata)입니다. 이것은 5회기, 에스라 9-10장입니다.

성경을 에스라 9장으로 바꾸십시오. 9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에 직면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율법이나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혼의 죄의 문제를 봅니다. 9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 이 일이 있는 후에 관리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방 백성과 구별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에 죄가 있을 때 다른 수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그 땅 백성과 분리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열합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족속, 아모리 족속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딸 중에서 몇을 취하여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삼았으므로 거룩한 족속이 이방 백성 중에서 제외되었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에는 관리들과 우두머리들의 손이 가장 컸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내 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놀라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모여들었는데, 이는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두려워 앉아 있었다.

이제 통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은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절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34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은 언약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출애굽기 34장을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리라. 너는 삼가서 네가 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들의 기둥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찍을 것이 니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지니라.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와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고 다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너희를 초대할까 하노라 너희는 그의 제물을 먹으며 너희의 딸들과 너희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신을 섬기며 너희 아들로 그들의 신을 섬기며 음행하게 하는도다

비슷한 목록이 신명기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대한 일곱 족속이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에게 넘겨 주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쳐부수게 되면 여러분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네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속히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의 인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룯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종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예배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순수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Fensham이 말했듯이, “다른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님의 순수한 종교를 파괴할 것이며 유대 신앙의 모든 것에 반대되는 혼합주의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문제였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에스라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음으로써 이것을 외부화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애도의 표시로 옷을 찢고 머리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3장, 열왕기하 22장, 욥기 1장, 이사야 22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벌거벗음에 대한 변형된 의식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은 면도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에스라의 행동은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즉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쫓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신을 경외하는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도 에스라와 합류하여 저녁 제사 때까지 함께 서서 그를 섬겼다. 상황의 심각성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인과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에게 얼마나 훌륭한 예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하며 그들의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지적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는 때때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충동으로 기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9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녁 제사 때에 에스라는 다시 1인칭으로 기록합니다. 나는 금식을 마치고 일어나 옷과 겹옷이 찢겨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머리보다 많고 우리 허물이 하늘에 사무쳤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야, 우리? 에스라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하는 일은 모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즉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좋은 지도자는 인민 앞에서 보복적인 모습을 결코 흔들지 않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인민과 하나가 됩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즈라도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집단적인 죄를 고백할 때 자신을 그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죄에 관해 말할 때, 우리의 죄악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람들과 동일시합니다.

7.7 절

우리 조상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죄악이 심하니라.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에 죽고 포로와 약탈을 당하고 심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8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남겨 남겨 두사 우리로 그의 거룩한 처소 안에 안전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의 종살이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예즈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9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사 우리에게 소생케 하사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그 전을 수리하게 하셨으니” 폐허를 무너뜨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보호 해 *주실 것입니다.*

10 “이제 우리 하나님여, 이 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버렸사오니 **11** 이는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이 땅 백성의 더러움으로 더러워진 땅이요 그들의 가증한 일이 그 땅을 가득 채웠음이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부정함과 함께. **12** 그런즉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로 삼지 말며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남기리라’

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같이 우리에게 남은 자를 주셨으니 **14**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민족들과 결혼하리이까? 주께서 우리를 멸하여 남은 자도 없고 피할 자도 없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피하여 남은 자가 오늘과 같으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당신 앞에 섰나이다. 이 때문에 당신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이다.”

에스라는 공동의 죄를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그가 가진 이 모든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결혼하리이까? 아니, 그건 당장 대답해야 할 대답이다.

우리를 멸하시기까지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다시 말하지만, 이는 대답을 요구하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에스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은혜와 공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스라의 기도는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에게 훌륭한 모범입니다.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무리 정교하고 화려하더라도 결코 강한 기도 생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죄를 고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우리 대 그들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야, 가족이야. 자신보다 더 성스러운 태도를 가진 리더는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당한 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리더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쓴 것처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하여 낮추신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소에 죄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10장에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려 줍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부르십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0장의 처음 네 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권고는 거룩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달라져야 합니다.

1 에스라가 울며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복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심히 큰 무리의 남녀와 어린아이가 그에게 모여들었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통곡함이었더라. **2**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 백성 중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느니라 **삼 그러므로 우리** 주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들의~~ 권고와 우리 주의 계명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다 쫓아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도록 합시다. **4** 일어나세요. 이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힘내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규정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 보라, 그들이 아내를 제쳐두고, 말하자면, 당신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도 두 가지 잘못은 옳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다시 모범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에도 그는 모범을 보인다. 그는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에게 찾아온 이 스가냐는 비록 죄인 명단에는 없지만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여성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구약성경에 10번 나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 왕과 관련하여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왕기는 그들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으로 식별했습니다.

열왕기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문맥을 보면 이 여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비유대인 여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에스라를 경악하게 만든 외국인과의 통혼 자체가 아니라 혼합주의적이고 이교도이며 우상 숭배자인 외국인과의 통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해요 .

그는 에스라의 모범을 따릅니다. 그는 '글쎄요 ,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 아니요.

그는 죄를 처리하고 싶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또, 통혼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아내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녀들도 버릴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결혼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가혹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지라는 권고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격려의 말을 에스라에게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아니면,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1장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그들과 맞서고, 말씀으로 그들과 맞서고, 그들이 죄를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적어도 처음에는 회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5절과 6절).

5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서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6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물러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되 ^ㄴ ^뿔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포로들의 불신을 애통함이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도 나옵니다.

7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포로로 돌아온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공포되매 **8** 누구든지 삼일 안에 오지 아니하면 방백들과 장로들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 사람도 포로의 회중에서 제명되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매우 가혹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9절과 11절).

9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삼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때는 아홉째 달 이십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 이 일과 큰 비로 말미암아 떨더라. **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배반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하였느니라 **11**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라. 이 땅 백성들과 타국인 아내들과 분리되어 있으라.”

때때로 지도자의 임무는 죄에 맞서는 것이며, 에스라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 번, 그는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식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분리된다는 것은 거룩함의 개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12절 이하.

12 그러자 회중이 모두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13** 그러나 사람들은 많고, 비가 많이 내릴 때이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설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루나 이틀 동안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14** 우리 간부들이 전체 의회를 대표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읍에서 이방인 아내를 취한 모든 사람은 이 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기까지 각 성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을 정한 때에 그들과 함께 오게 하라.”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회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에스라의 기소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하기로 동의하지만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아니요.

15절에 보면,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 의 아들 야스야만이 이 일을 반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대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글썄, 그들은 지지자를 얻습니다.

“레위 사람 므술람과 삽브대도 그들을 도왔느니라.”

그들은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력, 이 경우에는 레위 지파 지도력으로부터도 반대를 받았습니다.

16 그러자 돌아온 유배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자기 종족을 따라 각 가문의 우두머리 ~~를~~ 뽑았는데, 각 사람의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열째 달 초하루에 그들이 그 일을 조사하려고 자리에 앉았더니 **17** 첫째 달 초하루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백성의 추천을 고려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110건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작업은 3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우와. 그것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18절부터 44절까지를 통해 듣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잠을 자는 데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이 목록을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은 당신을 정말 빨리 잠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8절과 19절은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지도자들의 가족에게 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제사장이 17명, 레위인이 6명, 문지기가 3명, 노래하는 사람이 1명, 평신도가 84명입니다. 엘리 시대에 사무엘상 1~3장에서와 같이 심지어 일부 제사장의 아들들도 통혼의 죄를 범하였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 목록이

제사장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와 그 가족이 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0-24절, 또 너희에게 제사 직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남아 있느니라. 25절부터 시작하면 평신도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제목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끝이 납니다.

책은 그렇게 끝난다. 책을 마무리하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무릎을 꿇고 뭔가를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경건은 준비를 대신할 수 없고, 준비가 경건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 함께 가야합니다.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이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건과 준비, 경건과 행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라서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가르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Dr. Tiberius Rata)입니다. 이것은 5회기, 에스라 9-10장입니다.